

지베레린 이용해 알크고 씨없는 포도 수확

- ◀ 지베레린이 식물생장에 이용된 이래 포도에 지베레린을 처리하 ▶
- ◀ 면 포도의 씨가 없어지고 송이가 커질 뿐만 아니라 숙기가 빨라 ▶
- ◀ 지는 이점이 있어 지베레린 처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포 ▶
- ◀ 도알이 밀착되어 알 숙기가 필요한 「골든퀸」이나 「캠벨러리」같은 ▶
- ◀ 품종은 낮은 농도로 처리하면 포도송이를 크게하는 등 품질개선 ▶
- ◀ 면에서도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베레린의 포도에 대한 이 ▶
- ◀ 용법은 어떠한가 알아두는 것도 과수재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품종따라 처리법달라]

지베레린에 대한 적응성은 품종에 따라 달라 일반적으로 씨없는 포도재배에 사용되는 품종은 테라웨어·마세 7호테라 등의 테라웨어계통과 화이트어리·힘로 씨드레스가 대부분이다. 다노레드·네오마스캣 등은 씨가 없어 지긴하나 포도 껍질이 취급중에 탈립되기 쉬우므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마스크베리에이는 해에 따라서는 잘되나 불안정한 것이 흠이다.

지베레린을 처리할 나무는 수세가 약하면 꽃벌이 현상이 많고 포도알의 비대가 불량하므로 튼튼한 나무가 좋으며 전년도의 결실과다, 병충해나 약해에 의한조기낙엽, 노쇠한 나무에서는 실패

하기 쉽다. 또 처리한 나무의 진정은 결과모지를 약간 짧게 전정하여 새싹의 성장을 고르게 하고 개화시기를 균일히 해야한다.

시비는 기비를 중심으로하고 10~20% 정도를 더 주어 수세를강하게 키운다. 또 결실량은 처리하지 않은 나무보다 20%정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처리한 후에는 청명한 날씨가 좋으는데 처리후 15시간 이내에 20mm이상의 비가 내리면 다시 처리해야 한다.

[품종별 처리방법]

◇ 테라웨어 ◇

○처리시기 : 한송이에 2번 처리해야 하며 제 1회는 개화전에 씨없는 포도가 되고 빨리 익도록하

기 위하여 처리하고 제 2회는 개화후 꽃이 활짝피기전 14일을 중심으로 2~3일간이며 수세가 왕성하지 않으면 약간 늦은 것이 좋다. 너무 빠르면 과방의 신장이 너무 지나쳐 포도알이 성글게 불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제 2회 처리는 만개후 10일후에 처리한다.

○처리방법: 지베레린의 처리 농도는 100ppm이 적당하며 시판되고 있는 50ml를 물 500ml에 녹여 쓰면 된다.

처리방법은 송이를 지베레린액에 담그는 법과 분무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송이를 담그는 법을 많이 사용한다.

적당한 용기에 지베레린액을 넣은 다음 각 송이마다 2~3회 가볍게 흔들어 지베레린액의 부착을 돕는다. 처리시에는 누락되는 송이가 없도록 주의하되 만약 처리안된 과방은 제 1회 처리후 3~4일이 되면 처리된 송이의 신장이 30~40% 신장되고 색깔도 담록색이 되므로 이때 처리안된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처리효과: 데라웨어 품종은 지베레린을 처리하면 숙기촉진은 16~35일로서 평균 24일정도 빨라지며 무핵율(씨가 없는 비율)은 제 1회 처리를 잘 맞추면 99%가 된다.

◇ 화이트어리 ◇

화이트어리의 지베레린처리는 데라웨어의 처리 경우와는 처리 시기, 농도등에서 차이가 많다.

보통 화이트어리에 있어서는 3회를 처리하며 1회는 과방의 비대가 목적이며 데라웨어와 동일한 시기로써 만개 14일전이며, 처리농도는 80ppm이면 된다. 그러나 1회처리는 데라웨어와는 달리 처리시기의 폭이 넓어 약간빠를 경우는 60~70ppm, 좀 늦은 경우는 100ppm을 처리한다. 제 2회 처리는 씨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화이트어리는 데라웨어와 달리 1회 처리로써 씨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2회 처리로써 효과가 있다. 2회처리시는 개화직전으로써 120ppm의 농도가 적당하다.

제 2회 처리는 화이트어리의 지베레린처리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처리로써 이시기에 잘못하면 씨가 남게되므로 한송이내에서 숙기가 고르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가 된다.

제 3회 처리는 포도알의 비대가 목적이며 만개후 10~15일에 120ppm을 처리한다. 수세, 환경 등이 좋으면 100ppm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